



## Q3 2024 Earnings Report

본 자료에 포함된 2024년 3분기 주식회사 예스티(이하 "회사")의 별도기준 경영실적 및 재무성과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2024년 3분기 당사의 별도기준 경영실적은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이므로, 그 내용 중 일부는 향후 회계감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또한, 본 자료는 당사의 경영전략과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정보는 실적발표 시점 현재의 당사 사업환경을 고려하여 작성된 것으로, 향후 전망은 여러가지 변수 등에 따라 실제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.



## YEST 3분기 실적 설명회 자료

---

- 
- I. 3분기 실적 리뷰
  - II. 비즈니스 현황 업데이트
  - III. 주요이슈 공유
- 

2024. 11  
주식회사 예스티

# 1. 3분기 실적 리뷰 - 별도 손익 요약

[2024년 3분기 별도 손익 요약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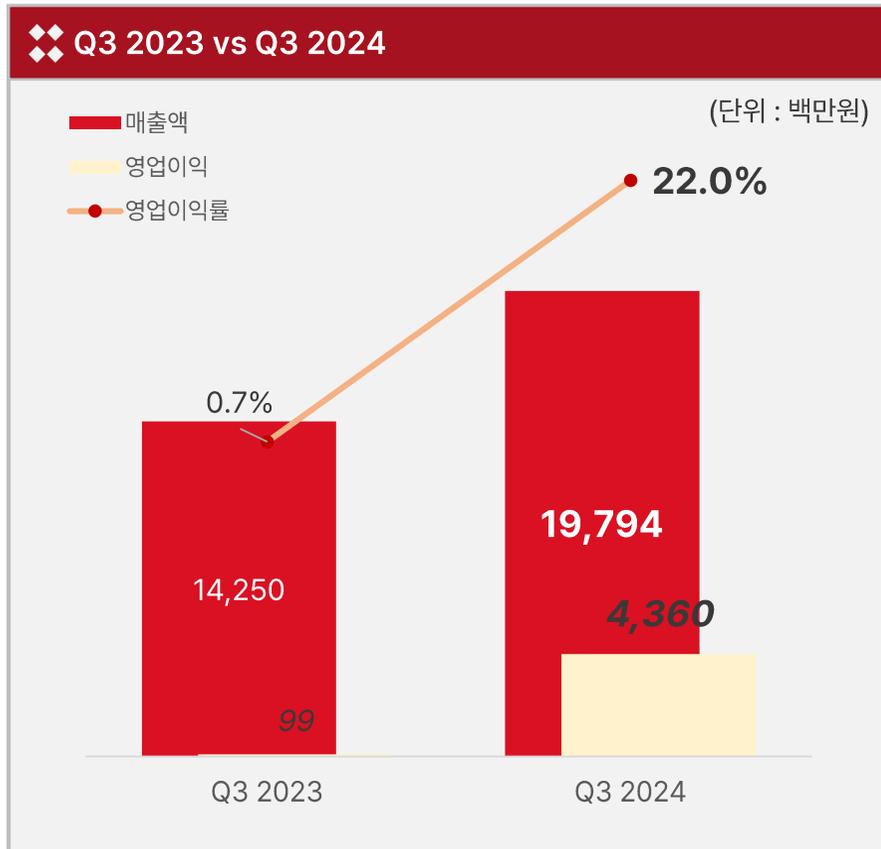
(단위 : 백만원)

별도손익계산서	3분기 누계 (1~9월) 실적				3분기(7~9월) 실적				상반기(1~6월) 실적			
	2023년	2024년	(증감률)	(증감액)	2023년	2024년	(증감률)	(증감액)	2023년	2024년	(증감률)	(증감액)
매출액	42,429	62,257	46.7%	19,828	14,250	19,794	38.9%	5,544	28,179	42,463	51%	14,285
매출총이익	10,033	19,615	95.5%	9,581	2,619	6,797	159.5%	4,178	7,414	12,817	72.9%	5,403
매출총이익률	23.6%	31.5%			18.4%	34.3%			26.3%	30.2%		
판매관리비	9,357	8,995	-3.9%	-363	2,520	2,438	-3.3%	-82	6,837	6,557	-4.1%	-280
판매관리비률	22.1%	14.4%			17.7%	12.3%			24.3%	15.4%		
영업이익	676	10,620	1,471.5%	9,944	99	4,360	4,306.4%	4,261	577	6,261	985.3%	5,684
영업이익률	1.6%	17.1%			0.7%	22.0%			2.0%	14.7%		
당(분)기순이익	(16,292)	2,202	TB	18,494	(7,482)	6,251	TB	13,733	(8,810)	(4,049)	(-)지속	4,76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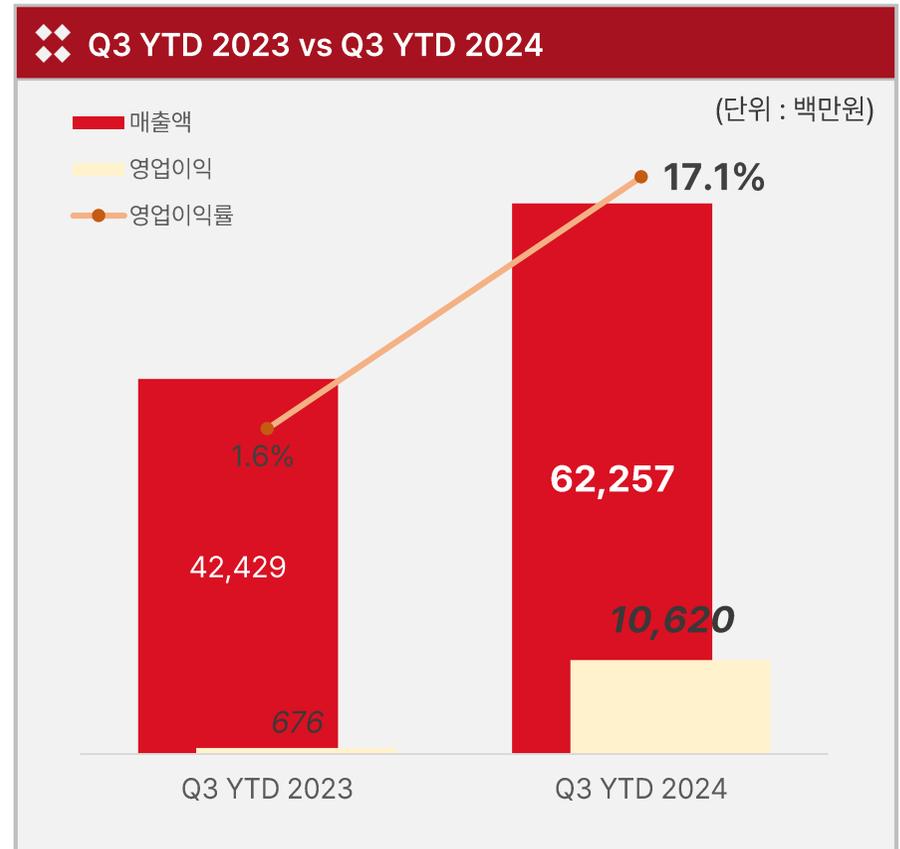
# I. 3분기 실적 리뷰 – 매출액 및 영업이익

- 매출액 : 국내 및 해외 반도체 장비 수주가 증가함에 따라 성장률 지속
- 영업이익 : 高마진 반도체 장비 매출액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영업이익률 개선

[3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 변동 추이]



[3분기 누계 매출액 및 영업이익 변동 추이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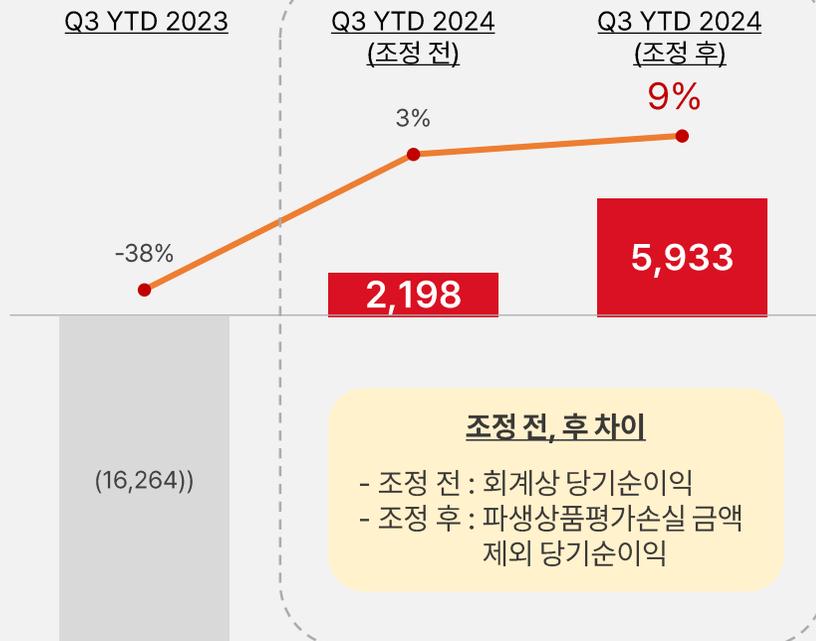


- 3분기 누계 순이익 22억원 (조정 전) ▶ 파생상품평가손실 제외 시 59.3억원 (조정 후)

## [3분기 누계 당기순이익 변동 추이]

### ❖ Q3 YTD 2023 vs Q3 YTD 2024

(단위 : 백만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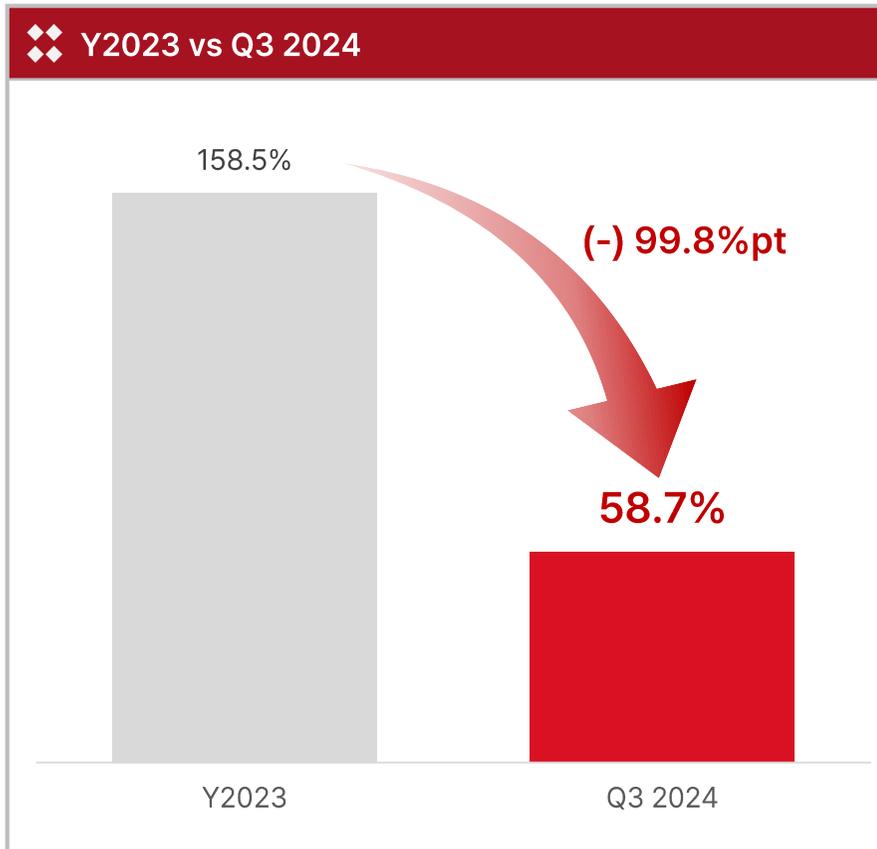


- '24년 3분기 누계 기준 22억원의 당기순이익 달성
- 주가 상승에 따른 CB(전환사채) 등 파생상품평가손실(이익을 제외한 순액) 37.4억원을 제외 시 당기순이익 59.3억원을 달성

# I. 3분기 실적 리뷰 – 부채비율 및 순차입금

- 부채비율 : '24년 3분기 누계 부채비율은 '23년 기말 대비 99.8%pt 개선된 58.7% 달성
- 순차입금 : '24년 3분기 누계 순차입금은 '23년 말 대비 94.5억원 감소한 19.1억원 달성

[부채비율 변동 추이]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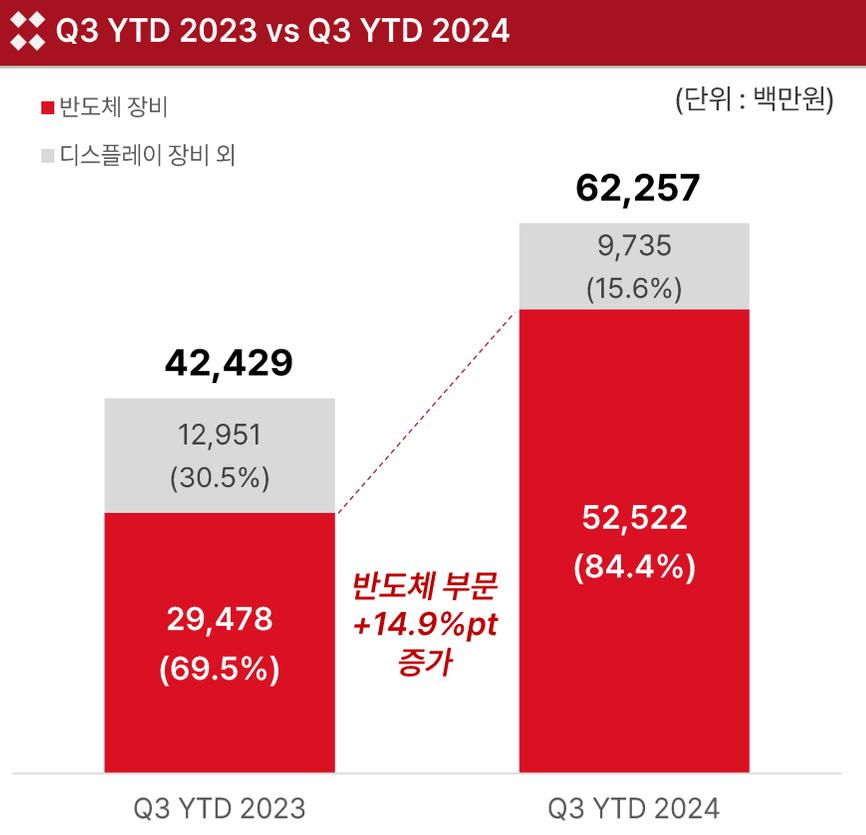
[순차입금 변동 추이]



주) 순차입금은 전환사채 전환우선주를 제외한 금액

- 반도체 장비 사업부문의 지속적인 매출액 증가가 전반적인 실적 성장을 견인

## [사업 부문별 누계 매출액 변동 추이]



- '24년 3분기 누계 매출액 중 반도체 사업 부문이 84.4%를 차지하며 전체적인 실적 성장을 견인
- 반도체 부문 실적은 회사의 반도체 장비 중심으로의 성장 전략에 기인하여 '23년 하반기부터 수주잔고 급증  
→ '23년 동기 대비 (+)14.9%pt 증가
- 반면,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은 전년 동기 대비 (-)14.9%pt 하락한 15.6% 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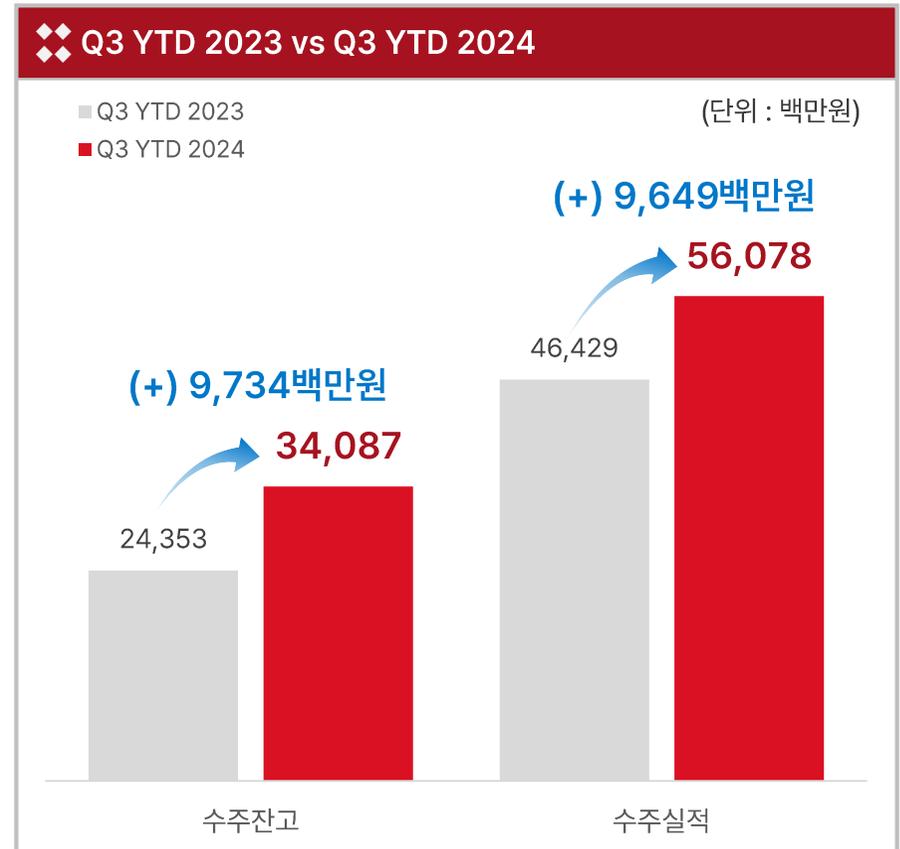
## II. 3분기 실적 리뷰 – 수주현황 I

- 3분기 신규수주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35.6억원 증가
- 3분기 누계 기준 신규수주 및 수주잔고 증가 → 전년 동기 대비 각각 약 100억원 증가

[신규수주 금액 변동 추이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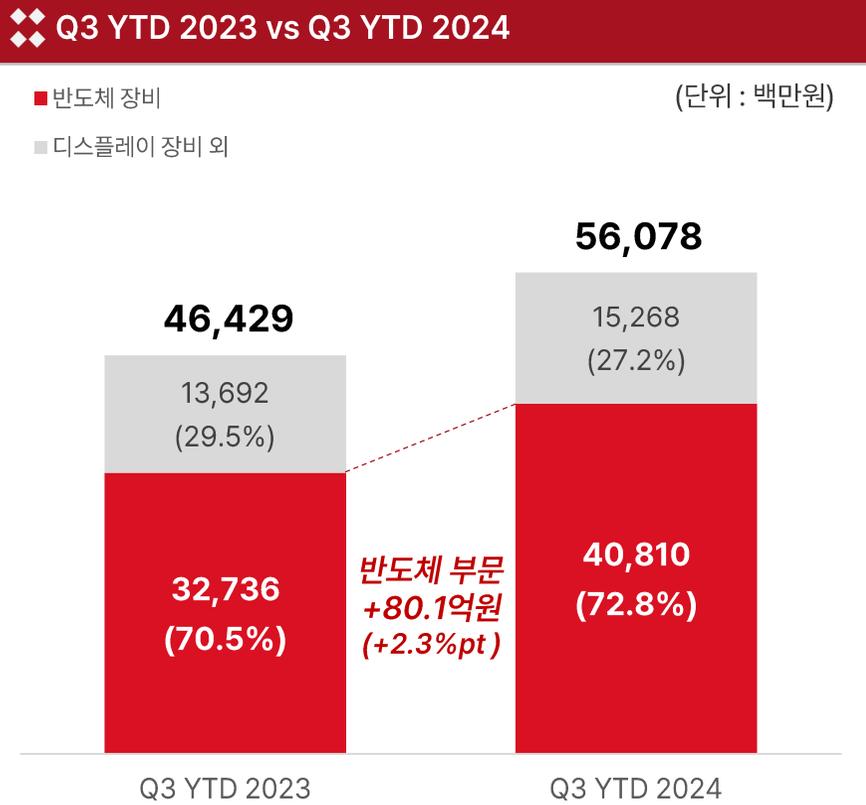


[수주현황 변동 추이]



- '24년 3분기 누계 신규수주는 반도체 장비 부분의 성장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96.5억원 증가한 560.8억원 달성

## [사업 부문별 누계 수주현황 변동 추이]



- '23년 3분기 누계 신규수주는 96.5억원 증가한 560.8억원 달성
- '23년 3분기말부터 이어진 HBM 관련 반도체 장비 수주 증가가 전체적인 반도체 장비 수주증가에 기인  
→ 80억원 증가 (+2.3% 매출액 점유 비중)
- 반면,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은 전년 대비 매출액은 소폭 증가하였지만 매출액 점유 비중은 소폭 감소  
→ 16억원 증가 (-2.3% 매출액 점유 비중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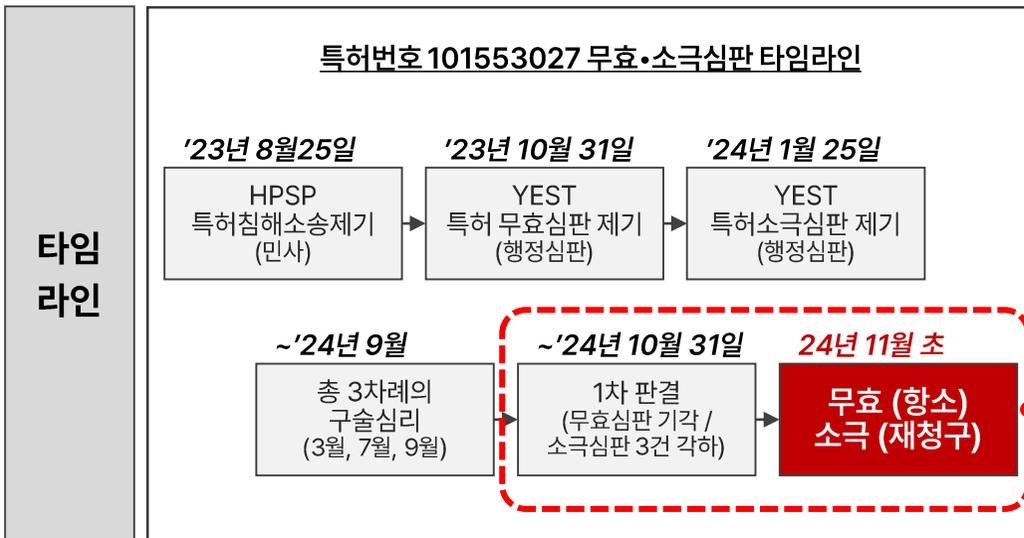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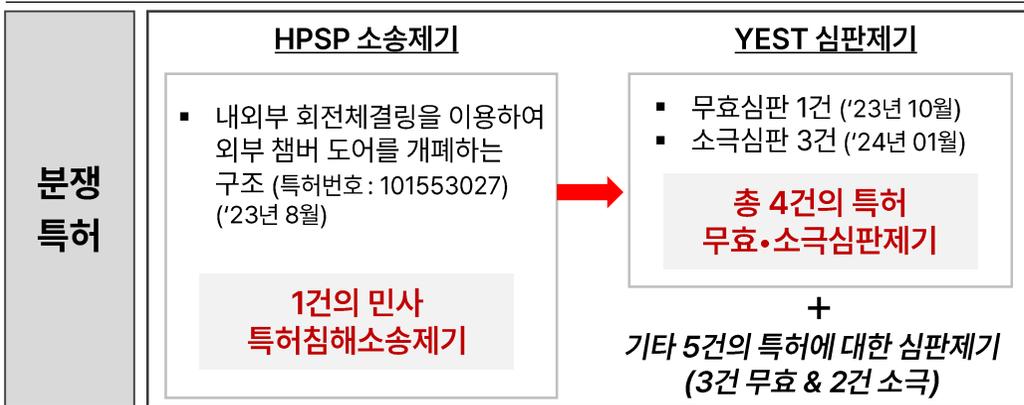
### III. 주요이슈 공유 – 투자 Highlight

Upside Factor	Segment	Investment Highlight	
Foldable Phone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디스플레이 장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신규 폴더블 폰 물량 대응</li> </ul>	<p><i>Industry</i></p> <p><i>Company</i></p>
국내 메이저 HBM 공급사의 투자 확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반도체 장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국내 HBM 메이저 공급사의 DRAM 분야 적극적 투자 (후공정)</li> </ul>	<p><i>Industry</i></p> <p><i>Company</i></p>
글로벌 확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반도체 장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반도체 장비를 필두로 한 해외매출 본격화</li> </ul>	<p><i>Company</i></p>
신규 장비개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반도체 장비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반도체 전공정 장비 포트폴리오 추가 확장</li> </ul>	<p><i>Company</i></p>

# III. 주요이슈 공유 - 특허소송

- 10월 31일 소극심판 3건에 대해 **기각이 아닌 각하 판결**
- 구체성을 보완하는 자료 구비 후 → **11월초 무효항소 및 소극심판 재청구**

## 진행사항 (~10/31일)



## 각하판결 원인 및 향후 대응방안 (11/1~)

소극 심판	쟁점 포인트		각하판결 원인
	YEST 장비 구조	HPSP 장비 구조	
0151 (특허등록완료)	- 외부회전체결링 無존재	- 외부회전체결링이 회전하여 잠금	특허 침해의 의미가 아닌 청구 내용의 구체성 미비
0153 (특허출원완료)	- 내·외부 도어 자체가 2중 도어가 아닌 단일 도어 구조	- 내·외부 도어의 2중 도어 구조	

### 각하판결 원인을 분석하여 11월 초 재청구

- 10월 31일 각하판결은 소송에 대한 심리를 거치지 않고 내려지는 판결
- 만약, 당사가 HPSP의 특허권리범위를 침해했다면 각하가 아닌 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것임
- 즉, 심판 과정에서 기술 노출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정보로 심판 청구한 것이 각하 판결의 주요 원인
- 현재로서는 고객사 대응 및 시장 진출이 더 시급한 사항이므로, 재청구 과정에서는 주요 기술노출의 위험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응 예정